

# 화순전남대병원, 디지털 병리 솔루션 구축

## 판독 정확성·속도 올리고 암 진단·치료 효과 극대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구축한다. 고화질 모니터에서 보이는 병리 영상을 통해 판독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 암 조기 진단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지난 8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한국로슈진단과 디지털 병리 솔루션 구축 기념식 행사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용연 병원장과 김인영 진료처장을 비롯해 한국로슈진단 킷 탕(Kit Tang) 대표이사, 정광훈 병리진단 사업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디지털 병리 솔루션 소개 및 기대효과 설명 △라이브(Go-live) 행사 기념 테이프 커팅식 △디지털 스캐너 장비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지난

7월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협업체 호남·충청지역 최초로 디지털 병리 솔루션 구축 사업에 돌입했다.

디지털 병리 솔루션은 세포와 조직의 현미경 검경을 위해 사용하던 유리 슬라이드를 고배율의 이미지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전환,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병리학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솔루션이 구축되면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병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

게 되며, 환자 정보공유 및 협진이 활성화돼 맞춤형 치료에 효과적이다.

환자들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니거나 분실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병원을 오가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킷 탕(Kit Tang) 대표이사는 “환자 맞춤형 치료와 디지털이 암 환자 치료의 트렌드가 되어가면서, 최첨단 기술의 도입은 우선시 되는 과제가 됐다”며 “최첨단 기술인 디지털 병리 솔루션 도입이 세계 최고 암병원으로 명성을 가진 화순전남대병원

에, 보다 진보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용연 병원장은 “취임하면서 병원 디지털화를 강조해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병리 솔루션 도입이다. 디지털 병리 솔루션 구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뿐 아니라, 편리성 향상과 연구환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술적인 면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밝은안과21병원,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

### 취약계층 아동에 성금 500만원

밝은안과21병원(대표원장 김덕배)은 지난 1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장 김은영)이 주관하는 ‘2023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 참여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12일 밝은안과21병원에 따르면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후원자들이 산타가 돼 소외계층 아동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연말 사회 공헌 캠페인이다.

밝은안과21병원은 매년 광주지역 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산타원정대에 동참하고 있다.



밝은안과21병원 김덕배(왼쪽) 대표원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영 광주지역본부장. 밝은안과21병원 제공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거비, 난방비, 외식비, 크리스마스 선물

비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김덕배 대표원장은 “추운 연말연시, 사각 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21병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액 후원자의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면서 지역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소아사시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지원, 영아일시보호소 사랑의 기금,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 등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노병하 기자



조선평대병원은 지난11일 국제사업센터 세미나 A실에서 ‘2023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워크숍’을 실시했다. 조선평대병원 제공

## 조선평대병원, 2023년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워크숍

###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 시 대처

조선평대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지난 1일 국제사업센터 세미나 A실에서 ‘2023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워크숍’을 실시했다.

12일 조선평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표본 감시 체계 참여 기반 구축 및 의료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 증진 일환으로 실시됐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감시자료 수집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했다.

또한 광주보훈병원, 광주첨단병원, 광주KS병원, 광주우암한국병원, 광주해피뷰병원, 광주선한병원, 광주희망병원 7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모의도상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가용 격리병실 부족 상황에서 중환자실 CRE(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장내세균속 균종) 유행으로 가정해 △환자 병실 배치 △환자 격리 시 준비물품 △치료 장비와 기구관리 △접촉자관리 △격리해제 등의 대응 방안을 토의하며 진행됐다.

윤나라 감염관리실장은 “이번 의료기관과의 협력 훈련이 의료 감염발생 시 격리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대처 상황에 대한 모의도상훈련을 통해 감염관리의 역량을 강화 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 내 의료감염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기독병원 ‘작은예수 봉사대’ 사랑나눔 활동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이 성탄절을 맞아 병원 예배실에서 ‘작은예수 봉사대’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12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후 봉사대는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간호부,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로 구성된 5개 팀이 사랑 나눔 활동을 할 곳을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필요한 내용을 협의해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광주기독병원 선교회는 백운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과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고, 간호부와 행정부는 성폭력피해지원센터, 장애인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진료지원부서는 미안마교회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탄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